

사설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자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명령이다. 내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온갖 변명으로 차일피일하면서 육신의 소욕과 편의도모를 우선하고 정작 예수님의 말씀에는 편전을 피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 나의 존재가치는 온전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으며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는데 있지 않다. 어찌만 우리는 순서를 거꾸로 하면서도 오히려 당면하고 있는 것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심히 어렵지만 가장 급선무이다. 사도바울은 너는 복음을 전파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고 했다. 전도는 환경에 따라 적당히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사명이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각자가 힘쓰고 애쓰는 그곳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바란다. 교회에서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전도자로서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엄격한 개신교에 비추어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고쳐가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있는가. 바울사도처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는 일에 열심인가. 복음은 계속적인 일을 무기로 선포하려고 하였는가. 전도는 하나님께 세상을 이치럼 사랑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는가.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가 있다. 춘천에서는 성시화를 위한 총력전도를 매년 실행하고 있다. 모든 교회 전 성도들이 7월초를 기해 총력전도에 출전수명을 보여야 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거나 핑계대는 일없이 동참할 것을 권한다. 지금까지는 개교회, 작은교회들이 교인층에 의문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더 나아가 전 시민 구원을 통한 성시화를 이루려는 차원으로 함께 전도사역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내가 전도에 나서지 않으면 그만큼 지옥행의 시민이 많아지며 그것은 곧 내 책임임을 통감해야 한다.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웃이 지옥에 가게된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져야 하겠다. 멸망의 백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7월 4일부터 3일 동안 전국 대학 성도자들이 춘천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념 총력전도에 교회 신자들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대교와 작교교인, 나와 너 할 없이 총력으로 전도사역에 나서야 하겠다. 매년 총력전도를 위해 전도하도록 개교회와 버스 지원을 하고 있다. 개교회교회 플러스를 위해서 보다는 춘천시민 구원을 위한 전도에 내 평생의 값지고 귀한 기회를 삼아야 할 것이다. 평생을 전도사역 한번 못하고 천국을 가겠다는 생각이라면 지나친 애교이스트가 아닐까 싶다.

씩는 양식과 영생 양식(요6:22-40) Ⅲ

셋째 오순절과 간음 그리고 원당과 불령 매복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죄를 범하였는데 성경은 애굽을 세상 또는 육체에 속한 것들로 말함이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는 운명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때? 멸망하였습니까? (고전 10:9-10) 가 헬라어? 아로미어?입니다.

1.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고전 10:7-10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라 되지 말라 기록된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 합과 같으니라 /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시험하지 말라 /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2.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2) 고전 10:11-12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만세를 만년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지유

한 가나안 여인이 귀신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자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며 그 여인을 무시하였습니까. 이때? 자녀? 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함에 있어서 당시 유대인들의 우선권을 상정하며 '개'는 이방인들을 그리고 '떡과 부스르기'는 영생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만이 영생양식이 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가치와 믿음을 말합니다.

1. 가나안 여인의 간구 내용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1) 마 15:22-23 가나안 여자 가나 그 지경에서 나오시 소리를 지르되 주 다했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들었나니 하되 /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2. 여인의 두번째 간구에 대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2) 마 15:26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

땅치 아니하니라

3.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3) 마 15:27 여자가 가로되 주여 율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밭어지는 부스르기를 먹나이다 하니

4. 예수님만이 영생양식인 줄 알았던 여인의 믿음에 대해 주님은 결국 어떤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4) 마 15: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무리들의 표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무리들은 표적을 증거 찾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 분 자신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능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영생 양식?이라는 진리를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을 욕망한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표적을 통하여 그 분 자신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능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영생 양식?이라는 진리를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표적을 욕망한 자들이 아니라 영생의 표적을 통하여 그 분 자신의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능의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영생 양식?이라는 진리를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1. 무리들이 생각했던 표적은 무엇입니까?

1) 요 6:31 기록된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나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사를 먹었나이다

2.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유영자 전사

(일산일민장로교회)



나니까?
2) 요 6: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이 '영생 양식'으로서 메시아라는 진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육적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위한 모세의 만사를 더 기대하고 주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지되 삼아 임금을 삼으려고 했던 무리들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밭어지는 부스르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생 양식'이라고 말씀으로 고백을 하였습니까. 그 결과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그 분의 존재와 가치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직장선교연합

모든 직장에 예수님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실천을 강요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가끔 한번씩 만나는 사람에게는 친절 할지도 있고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날마다 얼굴을 마주 보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끼리는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직장안에서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이들과부터 인정받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흔히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인과 같은 자비와 도덕성을 갖추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직장내에서 기독교인들의 처신이 여러가지로 소속된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누가 사람이 내 직장에 요구하는 행동양식과 분위기 신앙양식과 배치되지만 할 수 없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건'을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현실에 입각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직장안에서 본인이 교인이라고 신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일도 없는 경우도 있고, 학창시절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직장에 입사한 시점에서 초보생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상사나 선배들로부터 적지 않은 충고를 받아야 하며 결국 그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 신세를 면하기 어려우니 생명의 수 단으로 잠시 신앙은 접어 두고 직장에 충실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장안에서 전도하다 보면 학생시절 교회 다니는 사람

이 대다수이며, 심지어 청년회장, 학생회장 등등 잡다한 말도 없었던 이들이 이제는 사명을 실천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이렇듯 직장안에서 믿음에 기초한 신앙의 유지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역할을 우리 직장선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먼저 믿는 선배들이, 교회에서 직접 받아 인하는 입원들이 모여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기도하며 굳건 하모니 함께 하는 모습을 지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도우미가 되어줄 때 기독교직장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에 쓰임 받고, 하나님께 드릴 영적예배의 선 제물이 되리라 믿습니다. '누가 사람이 내 직장에 요구하는 행동양식과 분위기 신앙양식과 배치되지만 할 수 없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건'을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현실에 입각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국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직장안에서 본인이 교인이라고 신념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아무런 일도 없는 경우도 있고, 학창시절 믿음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직장에 입사한 시점에서 초보생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면 상사나 선배들로부터 적지 않은 충고를 받아야 하며 결국 그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 신세를 면하기 어려우니 생명의 수 단으로 잠시 신앙은 접어 두고 직장에 충실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장안에서 전도하다 보면 학생시절 교회 다니는 사람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회장) 민경옥장로 ☎256-1260 / 258-8054

예수 중심의 신앙을 사수하라

기독교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다. 다른 종교에 대하여는 일종의 가치지 않는 사교가 강한다 하다. 그러나 생활면에서는 타종교인과 마찬가지로 세속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가득차있으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치신 이타적인 삶을 철저하게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 뿐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평가절하와 업신여김에 익숙하고 유일신 신앙에 대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한다. 평범한 개교회조차 작은교회를 마치 잘못된 것인 양 평가하고 경시하며 심지어 이단시하려는 경향을 가지려고 한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교회를 인정하고 복을 주신다는 사고가 지배한다. 자신을 바로 보지 못하고 우월감에 도취해 있는 우매함을 볼 수 있다. 하나님 제1신앙, 예수님 중심적이지 못하면서? 난직 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파움을 느낀다. 유일신앙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살피서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정부패에 있어 세계 40위라고 한다. 부패공화국이라는 말에 수긍이 가지면 기독교 대국인대 라는 생각에는 씁쓸함을 느낀다. 한신대 신학연구소 한태리 차에 의뢰하여 20대 청년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근로자의 정치, 사회, 문화분야에서 개신교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종교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40.2%로 불교 27.5% 가톨릭 20.4%의 뒤를 이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68.9%가 개신교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즉 개신교 신자의 70%가 자기중심적이고, 개신교 수가 너무 많다가 67%이며 품위와 자질이 없는 성직자가 많다 52.8%, 참진리 추구보다 교세확장에 관심이 많다 76%(가톨릭 35.1% 불교 36.6%의 두배) 개신교는 지나치게 현금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70.8%이며 응답자의 절반반 이상이 개신교는 성장제일주의 성향이고 물질중심경향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40.3%에 달했다. 일반 국민들의 눈에 한국교회나 나 밖에 모르는 이미지가 비추어진다는 말로 종합할 수 있겠다. 현실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와 사회에서 자기 중심 또는 물질 중심적으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각자의 삶에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제 예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

동부연회 평신도단체 체육대회 성료

지난 6월 6일 원주 단구동 예미콘련 운동장에서 제1회 기독교대한교회 동부연회 평신도단체 체육대회가 열렸다. 평신도, 여성교회, 장장년회와 함께 개최한 체육대회로 그 의미가 크다.

오전 9시 30분 춘천중앙장리교회 권

오서 감독의 설교로 개회예배를 드린 후 남장교회 9인조 배구, 여성교회 피구, 장장년회 족구를 선행해 각 선교교회로 분장된 경기를 진행하였고 줄다리기와 4백미터 계주는 합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친교의 한마당 축제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성시화를 위해 후원하신 분들

【언제나 변함없는 기도와 물질로 이땅에 후원하시는 교회와 기독교인들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이렇게 묵묵한 믿음으로 후원해 주시는 손길들을 성령으로 움직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 〈개인〉 강성주 공영선 김철수 김기태 김기환 김영범 김원철 김원호 민병업 박동환 박성문 생기는 안미애 안정숙 엄필남 오홍수 이순환 이병민 이준태 이학민 이은경 황순옥 한희원 한순수 허영준 홍순복 황병환 장기영 정찬복 조남진 조진희 조순환 최경복 최성진 최희정
- 〈교회〉 순복음춘천교회(김주환목사) / 춘천중앙장리교회(사공정목사) / 춘천서사기교회(임택목사) / 춘천중앙성결교회(이원복목사) / 춘천중앙감리교회(권오복목사) / 춘천소양성결교회(이원복목사) / 춘천평화감리교회(한근목사) / 춘천봉암성결교회(임신영목사) / 춘천원일교회(신장국목사) / 춘천서사기성결교회(최성목사) / 춘천불사향장리교회(정재호목사) / 춘천원일성결교회(이은복목사) / 순복음하나교회(김집목사)
- 〈단체〉 이슬문대소리선교회(최주라장년, 순복음하나교회) / 이윤규(영광한의원) / 조은경(기성비) / 대로(보통병원선교회) / 이만호(영광한의원) / 윤기원(이타성) / 고기상(가톨릭비) / 강원도청직장선교회
- 〈특별후원〉 이영일(서사기교회) 유근창(순복음춘천교회) 평영용(평영장로교회)
- 〈후원계좌〉 ☎711-04-123620(예금주:조순환) ☎203-02-280238(예금주:조남진)

직장선교연합회 발전계획회의 개최

- 배가운동 정오배 성시화기도모임 열린찬양축제 -

춘천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회장 민경옥 장로)는 5월 22일 정오 조양동 회관에서 첫 번째 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발전사항을 협의 결정하였다. 임원들의 정기적인 선교의 방문과 50개 직장을 목표로 한 선교의 신규개척, 지역 선교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매월 마지막 주 회의를 일 동부교회에서 드리는 정오배에 1백여명 참여할 수 있도록 부회장을 임원직을 분담하여 독려하기로 하였으며 매주 목요일 성시화기도모임에도 동참하고 당일 모임 후에 임원회의를 행할 예정이다.

각 직장을 땀, 기도회를 통하여 열기를 높이고 매년 1회 개최하는

성시화기도회 메시지

“예수만이 살길이다”(요4:3-14)

- 서부감리교회 박영준 목사 설교 -

지난 5월 29일 춘천 성시화운동본부 주관 목요일 저녁 기도회에서 서부감리교회에서 담임하시는 박영준 목사님의 설교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심령에 감명과 뜨거운 위로로 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도사역이 그 중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자들을 부르면서도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다. 권도운동은 영혼을 살리는 운동이다. 사랑하며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운동이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복 받으며 살아가는 운동이다. 지극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운동에 최선을 다할 때 춘천성시화는 기쁨으로 돌아올 것이다.

수강생 분 길러 온 한 여인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이 주는 물 즉 돈과 명예와 권세, 지식은 우리에게 장광만과 기쁨이 될 수 없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나' 예수님 말씀처럼 목마를 수 밖에 없다.

한편 올봄, 모세오경도 타락한 인간에게는 대답이 될 수 없다. 인생을 목마름에서 근본적으로 구원하시고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 예수 뿐이다. 예수는 구원자이시고 진동자이며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요, 인류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생명이요, 인류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대담을 주시는 분이요, 춘천도성을 새롭게 만드신 분도 오직 예수 뿐이다. 춘천성시화도 예수운동으로 가 능할 것이다. 예수만이 춘천성시화의, 이 민족의 살길이다.

첫째 예수운동은 성령운동이다. 성령운동은 역사를 사회를 새롭게 하는 최대 혁명운동이다.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운동이다. 정치인들이 역대대통령들이 개혁을 부르짖어 왔고 희망의 유토피아를 외쳤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말았다. 성령의 역사하신 분이 새사람을 만들고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 '인간들에게는 이런 표적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법언을 말하며 뱀을 걸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령의 바람이 춘천성시화의 가슴에 불어 야 한다. 지리적 한국의 중심에 있는 춘천도성에 성령바람이 불어와 춘천성시화의 한국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둘째, 예수운동은 전도운동이다.

(장준용 장로 제공)

(성경:시편127편)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사역 중 하나는 천지를 만드신 일이다. 또 하나는 가정을 세우신 일이었다. 천지는 모든 자연 만물들이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고 가정은 사람이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1.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와 헛됨이'라고 했습니다. 집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말합니다. 모든 생물들에게는 거주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삶의 터전으로 가정을 집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이 충분히 살아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만 유독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음을 생각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가정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요, 2.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허사일 뿐!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2절 상)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도록 수고합니다. 그러

음 이루는 곳입니다. 집을 세워서 지어지는 하나님의 큰 뜻은 잠을 잘 자라는 것입니다. 잠은 안식을 의

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가정을 주셨습니다.

4 부부는 잠을 자는 곳
아담이 잠을 자는 곳은 온갖 죄악과 화를 만드신 것은 그녀가 편안하게 자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돈 버는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업하는 데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잘 때 이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깊이 잠든 사이에 화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라는 아담이 잠을 자는 사이에 나온 사람입니다. 일하다가 나온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을 이루게 돕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편한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면 죄악입니다. 오직 잘 때 때는 사업이야기,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가정을 편히 잠을 자는 곳입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신 큰 복입니다. 이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됩니다. 부부는 서로 안식을 나누라고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안식하며 살 친구, 동행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으면 잠이 잘 옵니다. 한눈팔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가정”은 잠 자는 곳



이명준 장로

(서사리교회,
춘천직장간담회와 중흥회장,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산교회
동부면회위원회 총무)

미합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는 ① 우선 건강해야 합니다. ②아침에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③괴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가 바르게 된 사람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잠입니다. 잠은 사람에게 주

책과 신앙의 만남

쾌락의 독재
(시사인물사전⑨)

인물과 사상사, 강준만



박석규 목사

(춘천신명교회)

노출의 계절 유월이 성큼 다가와 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고 있는 듯 하다. 배꼽디와 미니 스커트를 입기 위해 배꼽과 다리까지 노출해야 한다는 웃어야 할지, 아니면 울어야 할지?
분명 웃은 수치스런 곳을 가리고 보다 우아하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용되어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아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유혹적이길 바란다'는 일별 로망의 말을 실천하고 있는가 보다.
성경 기자들은 인간의 원리를 예전 동산의 선악과 문제를 통해서 이해했다. 특별히 '본능' 미움적도 하고 보람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식기도 한 실화를 따져 '한 뼚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한 화와 아담의 사건을 잘 기억하라! 결국 최초의 인간들은 자신 앞에 드러진 진실을 충고하고 지키기'라는 오히려 진실을 폐목하고 쾌락을 추구하며 스스로 '제2의 선'이 되고자 하는 구렁텅이로 빠졌다고, 그 후손들은 앞다투어 그 유혹과 유혹을 좇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시사인물사전⑨』:쾌락의

독재' 속에 실린 강준만의 글을 통해서 쾌락의 정제와 우상화되어 가는 미디어 산업의 힘을 깨닫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강준만은 "쾌락으로부터의 도피"나 '쾌락의 저항'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더 이상 가능한 선택은 아니다"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쾌락과 소비는 텔레아 벨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마치 달리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다고 한다. 쾌락의 유혹을 만족시키기 위해 소비의 해탈을 찾아 정복하려 하지만 언제나 자전거 바퀴처럼 '덜덜덜' 떨려서 있기 때문이다. '쾌락의 바다'에 빠져있는 자들을 구원이라도 하려는 듯이 주요 산업들은 앞다투어 광고산업 을 이용하여 익사자정에 있는 인간을 되든 감각기관을 공격하여 이윤을 추구하여 낸다. 쾌락(Passion)과 (동음)이의 어떤 패션(fashion)은 쾌락의 실천이며, 전도사는 크리스마스 디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치의 전도사로서 그는 '우리의 문화는 사치 그 자체다. 우리는 사치를 지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 또한 그는 매번의 존재를 근거를 '유혹이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성

공적인 패션은 있을 수 없다'고 한 말에 두고 있는 듯 하다. 즉 패션산업은 유혹이라는 선악과를 끊임없이 던지는 산업인데, 그 전위대로서 광고가 등장한다. 쾌락산업은 광고를 통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려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족을 유도함으로써 변장한다고 하니, 광고산업의 전설적인 인물 토니 슈와르츠는 미디어를 '제2의 선'이라고 하며 "전설은 팔자매의 윤리이지 진자'커뮤니케이션에서의 윤리적 행위를 판별하는 기준은 아니다"고 했으니 미디어가 새로운 진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요, '제2의 선'으로 도도히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인간을 파멸시킨 뱀의 진화가 그러했듯이, 쾌락의 산업 미디어 역시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 대부분의 인식하지 못한 채 인질로 잡혀있으니 불행한 것이다. 하지만 유혹과 노출의 계절 6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수치스런 부끄럼을 의의 한 원'으로 입히시기 위해 우리의 대문 밖에 서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다.

레크리에이션

게임중독의 원인



정 건 장로

(한국기독교레크리에이션학회 회장/부 명예회장)

컴퓨터를 친하게 만들고 게임이게 하는 것이 게임이다. 게임은 스트레스를 해소 시켜 주는 유익한 면이 있다. 그러나 지나친 게임은 중독증을 유발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게임중독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도 포함한 일반인에게서도 발생한다. 게임중독의 원인으로서는 게임자체의 특성, 게임을 하는 사람의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분위기를 들 수 있다.

① 게임은 점차 어려워진다: 몇개의 단계를 이루어진 대부분의 게임은 처음에

는 쉽다가 점차 어려워진다. 청소년들은 어려운 단계에서 이슬이슬하게 게임을 끝내게 되고 너무나 아쉬운 그 게임에 정복하고자 끝까지 도전하게 된다. ②파괴 본능을 만족시킨다: 슈팅게임은 총, 미사일, 레이저 등 강력한 무기로 상대방을 많이 파괴시켜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격투기 게임은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차고 때려야 이길 수 있다. 게임의 상대방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상대방을 무자비하게 제압할수록 만족감도 커진다. ③가상공간에 파묻힌다: 현실에서 청소년은 나약하고 소심하다. 그런데 가상공간의 게임을 통해서 캐릭터에게 부여된 막강한 힘을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패배하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격을 무찌르는 마음, 다른 공간으로 이동, 출입이 될 어지지 않는 연발음..... ④일정한 규칙이 없다: 모든 게임은 사람과 컴퓨터의 대결로 되어있다. 따라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일정한 규칙을 알고 나면 그 게임을 끝낼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게임들

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게임을 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인기 요인이며 끝없이 게임에 매달리게 하는 강력한 매력이다. ⑤현실도피의 낙원이다: 청소년들의 현실은 재미가 없다. 학교, 학원, 집으로 오가는 딱딱한 생활 그리고 과도한 공부, 확실한 비전이 없는 미래에 대한 압박감, 그런데 게임은 현실을 잊게 해주는 재미가 있다. ⑥가상공간에 또 다른 자신을 표현한다: 청소년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네트워크 게임 '리니지'는 가상게임 공간 안의 또 다른 사이다. 가정을 해는 사람(게이머)은 자신의 캐릭터의 능력을 키우고 상대방과 연합하거나 배신을 하면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진다. 청소년들은 게임속에서 다른 자신인 캐릭터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빠져든다. ⑦사회가 타를 만든다: 게임이기에 수백억 대로 커지면서 프로그래머라는 신종 직업이 등장했다. 그리고 언젠가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부 프로그래머들은 청소년들에게 놀라운 성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2000)

(다음호에는 중독 및 파생되는 문제점을 기고한다)

춘천 성시신문을
활용하십시오

교회와 선교회, 기독교관련 모임 또는 개인의 교회예정인 행사, 행사 결과(사진), 설교문, 수필, 간증, 소속단체 소개, 추천도서 소개, 성서, 그림 등 원하시는 내용을 성시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분은 매월 11일까지 A4용지 1매 내보(분량) 많은 경우 연재됩니다)의 원고를 다음 중 편리한 방법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① 팩스: 257-1260
- ② E-mail: choocelot@hanmail.net / hollyc@hosanna.net
- ③ 우편발송: 200-091 춘천시 호서1동 373-90번지 내 성시신문

원인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 팩스: 257-1260
● E-mail: choocelot@hanmail.net / hollyc@hosanna.net
● 우편발송: 200-091 춘천시 호서1동 373-90번지 내 성시신문

Manna

"살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경이 인간을 만든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환경론을 받아들이며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이 인간을 만든다는 것은 그 말이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혀 하지 못하도..." 그러므로 환경이! 스스로를 선택하고 자라라지 마라.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환경 탓으로 돌리려 하지 말고, 최초의 인간 아담을 생각하라. 모든 환경이 선으로 가득한 동산에서 모든 것은 타락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도는 모든 환경에 의해 압박을 받았지만, 굳게 서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쳤다. 그래서 모든 모든 변명을 환경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 문제다. 주어진 환경에 있지 않고 그 환경에 대처하는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의 힘, 시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인성이 결정된다. 것이다. 현재의

마음이
지배한다

세계가 도덕적인 부패로 가득 차 있다면 이는 우리 마음이 부패된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 마음을 부패시킨 것이 아니라 마음 자체가 부패되어 이 사회를 영겁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당신은 정성껏 마음을 지켜라. 마음에 나오는 것이 당신의 영혼의 생사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고급 주택에서 부유하게 살면서도 인생을 즐기지 않는다. 또한 가난한 판자집에 살면서도 따뜻하고도 후한 인심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설마 당신의 마음이 저속한 사원인지 더럽고 추악한 집인지가 당신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현재! 습관이나 환경을 고쳐 자신의 마음을 좋게 하려고 힘쓰지 마라. 후한한 강에서 아무런 더러운 쓰레기 몇 점 건져내도 합치라도 물의 근원이 정화되지 않고서는 그 강은 여전히 더러운 채 일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 앞서 먼저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켜라. 당신의 자연적 조부의 환경이 아니라 바뀌어 갈 것이다.
(George Dena Bradman / 명백) 웹블로그 http://sammo.net

Mission Perspectives(MP)

MP는 선교에 대한 관점들에 대한 스터디 프로그램으로 전체 15과로 되어 있어 성경적 관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전략적 관점에 대해 공부하게 됩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각 선교단체의 기본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신학대학원의 선교개론과목으로 학점을 부여하고 있을 만큼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도 몇몇 선교단체를 통해서 수년전부터 소개되어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 이어 춘천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가고 있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프로그램은 춘천을 성시화하여 나아가 민족복음화와 세계복음화에 교회를 개척 협력하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을 확신하며 앞으로 지면을 통해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린으로써 이미 훈련받은 분들과 앞으로 훈련에 참여하게 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적관점
MP과정의 1과부터 5과까지는 성경적관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모든 훈련이 그렇지만 성경적인 기반이 없으면 그 훈련은 사색누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다루게 되는 성경적인 관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1과 2과는 구약성경의 관점을, 3과는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서 '하나

님 나라'에 대해서 4과 5과는 신약성경의 관점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MP를 공부하고 나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MP 제1과 제2과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각자가 아니라 세상의 창조주부터 하나님은 선교를 시작하셨고, 창조는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며 인간과 피조물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배우고 나서 듣는 첫번째 것은 선교의 시작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대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시작이신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창조는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며 인간과 피조물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을 배우고 나서 듣는 첫번째 것은 선교의 시작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대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시작이신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창조는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신 것이며 인간과 피조물들은 그 영광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만 그에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동물을 고통하는 니느웨 백성이 멸망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인죽중생주의가 일으키는 열방에 대한 성경한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열방에 대한 선교적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것이지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뒤에 문화적 관점과 전략적 관점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구체적인 목적-열방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그를 통한 축복을 돌려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에서 나아가 마지막에 온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MP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삼중적 성취라고 배웠습니다. 이 삼중적 성취가 각각의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하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얘기한다고 했었지요.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끝없이 그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죽을 수 밖에 없는 열방에



최용조 목사 (남원리감리교회)

게 먼저 손을 내미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방이 구원을 얻도록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이 땅에 올 것을 약속하시며 온 열방을 구원하도록 하신 때가 바로 열방을 향한 구원의 때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교회가 자신의 과업을 완수하도록 복을 열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재를 위해서 그리고 열방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선교의 모습 중 하나가 바로 기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과는 반대로 나아가는 현실들에 대한 거부와 반역으로서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선교입니다. 여기까지가 1과부터 3과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신약의 관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동면장로교회 성전임당 감사예배

춘천동면장로교회(김성진 담임목사)는 6월 10일 정오 새성전에서 교단 및 춘천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전임당 감사예배를 드렸다. 본 교회는 가운데 세례식 전행적인 농촌 전진교회였으며 거의 모든 교인이 지역농민들이었다. 이들의 힘으로 300평의 대지 위에 2층 성전을 건축한 것은 기적이었다. 하나님께서 김성진 목사를 통해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모두를 감동케 했다. 김 목사는 이 고장 출신으로 세 주년들과 젊은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1960년대 가난으로 삼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모아 YMCA향토학교(중고등)를

운영하는 등 불우한 이웃을 위한 기독교 운동에 앞장섰다. 이날 예배는 김 목사의 사회로 시작해 황진석 목사 대표기도, 김광국 목사(성광장로교회)가 메시지를 전했고 함동총회장 서상기 목사, 성광총회장 전갑수 목사, 일산대교회 이경수 목사의 축사가 이어졌다. 조운수 사모의 축가와 성도들의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건축위원장 김종환 집사의 광고 후 고신 총회장 손영환 목사의 축도로 임당감사예배를 마쳤다. 예배 후 원근각자로 부터 축하와 감사사 모인 목사, 장로, 성도들은 인근에 위치한 구교회 성전으로 자리를 옮겨 정성으로 준비한 만찬에 감사하고 성도간 교제를 나눴다.



참스승 김동근 선생 전기출간

- 초대 강원도교육감 일화집 -

세상을 훌륭하게 살았던 명사들의 전기문이나 회고록이 많이 출간되고 있다. 이것은 문학적 산물일 뿐 아니라 후세들에게 본보기가 되며 남긴다는 점에서 한층 더 의미가 깊어진다. 한 개인이 일생을 훌륭하게 살았던 기록이므로 사실에 충실해야 하겠다. 김동근 선생은 초대 강원도교육감의 전기는 그가 강원도교육계의 거목으로 존경을 받았던 교육계로 인 만큼 교육계에 남긴 족적을 중심으로 평소 소의 생활을 가늠하기 어렵게 해서 남긴 좋은 전기라고 여겨진다.

내용은 김동근 교육감의 유교와 교육철학에서 강단에 섰던 25년 교육행정자로서 행한 20년간의 모습, 초대교육감 4년(1964-68년) 교육계 떠난 후 10여년 간 여러 사회단체장을 역임했을 때 연설문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감 4년 재직시 매일 쓴 일기와 회의록 연구할 줄, 노

년수필 낙수 등 자료가 방대하지만 다 기록하지 못했다. 전기는 장남인 김병희 장군이 사실에 근거하여 유교를 정리하였고 기타는 능력이 있는 지인이 정리하였다. 인생을 세상에 왔다 하지만 죽은 남고 세상이나 사후에 대한 교육방법 역시 변하지 않은 교육 그 자체는 영원하고 자자손손 후세에 계승되고 모본이 될 것이다. 김동근 선생 교육감은 춘천 성시화와 복음화를 지원하고 있는 석사감리교회 이영일 장로의 장인이기도 한다.



성시화관

가까운 교회로 인도해요... 교회는 달라도 예수님은 하나

강원노회 축구연합회장배 정탈 축구대회

제1회 대한예수교장로회 강원노회 축구연합회장배(회장 심상우장로) 정탈 축구대회가 오는 6월 28일(토) 강원노회 춘천기독교공에서 개최된다. 강원노회

를 비롯해 축구에 관심있는 많은 성도들의 참여를 바란다.
문의TEL: 241-4361 춘천제일장로교회

2003년 춘천 성시화 목요 기도모임 설교자

날짜	설교 & 간증	날짜	설교 & 간증
3/20	조우주 목사(대명장로교회)	3/27	김재일 목사(석사준복음교회)
4/10	변석규 목사(신명장로교회)	4/17	장영근 목사(동성장로교회)
4/24	조은재 목사(대명장로교회)	5/1	이학규 장로(석사준복음교회)
5/15	손학근 목사(석사준복음교회)	5/22	신성관 목사(춘천제일교회)
5/29	박영준 목사(서부강리교회)	6/12	박영진 장로(춘천CBS성전교장)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월드비전 춘천종합사회복지관 3층 대회의실
찬양인도: 김용일 장로 & 조경화 장로
성시화기도모임 대표회장: 신종철 장로 총무: 김용일 장로

춘천 기독교 직장인 정오예배 안내

일시: 6월 24일(화) 12:00(예배)~12:35(식사) 장소: 동부장로교회
설교: 맹희의 목사 사회&안내: 조후은 성도
기도&묵상: 춘천교도소 성도

일시: 7월 29일(화) 12:00(예배)~12:35(식사) 장소: 동부장로교회
설교: 나영식 목사 사회&안내: 춘천우계교 성도
기도&묵상: 강원도경찰청 성도

춘천직장인교연회 정오예배위원장 신상용 H.P.019-387-7110
(연합회비납부) 우체국 202267-02-050582에금주:홍달남

2003 춘천성시화 총력전도대회 개최

7월 4일(금) ~ 6일(주일) 3일간의 복음전도

↑전도전 전략↑

- ① 4명리를 통한 개인전도
 - ② 여론조사서를 통한 설문-집중전도
 - ③ 예수영화·Video Tape 활용을 통한 전도
 - ④ 박도전도
 - ⑤ 스코틀랜드 전도전도
- * 스코틀랜드는 종교개혁, 청년부와 함께 교회의 영원에 따라 구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노정전도시 교인들이 참여해 함께 박도전도를 실시하면 좋습니다.
* 개인전도 (전도목표 10명당)
- ▶ 참가교회 준비사항 ▶
- ▷ 전도지역을 위한 기도제목을 미리 작성하여 전교인이 정기적으로 기도합니다.
 - ▷ 전도지역과 전도대상은 본교회 목회자에서 선정하고 본교회에 제정합니다.
 - ▷ 대항성전도전도원과 함께 사역할 교회전도전도원을 미리 모집하여 기도 준비합니다.
 - ▷ 교회로 올 대항성전도전도원과 교회전도전도장 수리도 연례하여 실제적인 준비를 합니다.
 - ▷ 식사와 숙소, 이동을 위한 차량은 대항교회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수송계획: 교회지역적으로 7월 4일 오전 11시까지 교회에서 준비한 12인승 승합차를 지정된 선로 상무리조트로 대기시키면 됩니다. 수송구간: 춘천상무리조트~교외
 - ▷ 전도지역은 교회별로 준비하고 개인전도를 위한 4명리는 준비위원회에서 구입합니다.

【신청방법】

팩스 또는 전화 또는 이메일 중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신청에 주십시오.
*팩스 241-2300 *전화 254-5776 *이메일 crusade97@hanmail.net

【신청마감】

2003년 6월 20일 금요일까지
* 수송차량이 없는 교회는 성서문부에서 지원합니다.
* 미지급교회로서 전도를 원하실 경우, 준비위원회(0254-5776)로 연락하여 말하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전도명령에 순종하여 춘천성시화를 위한 총력전도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날씨 가운데 불구하고 대학생들이 평생 성우리조트에서 열리는 전도요원훈련(6.30~7.4)을 마치고 춘천으로 이동해 오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복음을 전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도지역은 교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여 교회부흥의 계기가 되고 성도들을 전도자로 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한 춘천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적극 참가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락처: 254-5776 / FAX: 241-2300

우편주소: 춘천시 후평2동 22-2 E-mail: crusade97@hanmail.net

후원 춘천기독교연합회 회장 임성민 목사
주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임성민 목사

춘천 성시화 총력전도대회 준비위원회

■ 춘천 성시화 도시전도 참가신청서 ■

교회명	교단	담임목사
주소	전화	핸드폰
E-mail	교회성립연도	전도원초청인원수
전도지역 분석 및 소견		기도제목
전도훈련강습회(L.T.C) 신청란		
위와 같이 춘천성시화 도시전도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03년 6월 일		
신청인: (인)		교회 (인)
담당교역자: (인)		

▷ 신청서 기도제목을 구체적으로(사목목표포함) 기록해 주십시오.
전도요원들이 명적으로 부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